

2013 사업보고서 Annual Report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서
특별협의지위 NGO 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지원NGO, 평화NGO, 남북통합NGO입니다.



중국 조선족학교 지원을 위한 모금 볼런티어 활동(수원 영덕중학교 학생들)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북한이 어디야? 아프리카 보다 멀어?”

당신은 어디가 더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을 돕자는 이야기가 뜬금없게 들리던 시절인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쌀 한톨이 없어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6대 종단과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시작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협의지위 NGO 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지원 NGO, 평화NGO, 남북통합NGO입니다.

인도적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해 주세요!

사무처에 신청해 주시면 매달 26일 회원님의 통장에서 약정액이 출금됩니다.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

휴대폰 후원
신용카드 후원
CMS 후원

국민 001-01-2503-703
농협 386-01-004282
하나 10101-3849606
신한 140-002-997113
외환 028-22-05491-1
우리 111-04-133058
우체국 010017-01-006718

지로번호 7641271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ksm7070.do>
싸이월드 <http://town.cyworld.com/ksmseoul>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 B1(마포동) 전화 02)734-7070 팩스 02)734-8770
ksmseoul@ksm.or.kr / www.ksm.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협의지위 NGO 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지원 NGO, 평화NGO, 남북통합NGO입니다.

- 2 감사의 글
- 4 사업지역 - 나눔이 가는 곳
- 5 북한 방문 및 물자지원 현황
- 6 2013년 활동일지 - 일년을 돌아보다
- 8 대북지원사업
- 9 북한어린이 지원사업
- 10 평화교육사업 - 청소년과 함께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 12 한교과서 수거사업 - 2013년에도 한교과서 날개를 달다
- 13 중국 조선족소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 17 정책 연구사업
- 18 고려인 지원사업
- 20 국제 협력사업
- 22 대외협력사업
- 24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
- 25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
- 26 미국 달라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
- 27 후원자 인터뷰
- 28 2013년 사업결산
- 2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하는 사람들
- 30 후원자 명단 - 당신이 희망입니다





감

사

의

글

2013년 사업보고서를 발간하며

1996년 창립 이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어느덧 18년째의 활동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되어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힘을 주시고 동고동락(同苦同樂)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3년 한 해에도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과 남북한의 평화와 통합운동, 그리고 해외동포 지원 사업을 나름의 열정을 다해 전개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어떤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이나 운동에 경사된 정체성을 보여준 적이 없었고 그저 평화와 나눔 정신에 공감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정성을 담아 창립정신에 걸 맞는 대북지원사업과 해외동포사업을 꾸준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몇 해와 같이 2013년에도 우리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정상화를 위해 쉽없이 주장하고 국민적 여론을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주장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해 대북지원 규모가 급감했으며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지역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사업(BaB 캠페인)만은 여러 어려움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올해는 더 많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해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와 관련된 일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평화를 주제로 한 축구 교실도 열었으며, 고등학생들과 조중 접경 지역을 방문한 후 평화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마지못해 한 일입니다. 상당한 시간의 고민과 많은 토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가 사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지난 몇 년 사이 절실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 교과서, 날개를 달다!”라는 모토로 2011년부터 시작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을 위한 헌 교과서 수거 사업’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 2013년 한 해에만 2,150개에 이르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헌 교과서 수거 사업을 통해 작년에는 중국내 3개의 조선족 학교에 ‘네모상자’ 도서관을 건립·지원하게 되었고 올해 여섯 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와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북지원 국제회의’ 또한 작년 11월 중국 북경에서 성과있게 개최함으로써 국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국제 NGO들간의 유일한 네트워크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해에도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회장단 역할 맡아 민간단체들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과 함께 대북지원의 정상화를 위해 맡은 바의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나온 맥락에 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지난 1945년 분단 이후 거의 70여년이 지나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부담과 회의론이 점점해 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의미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한 우려 역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한 고민과 노력 없이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꾸준히 개선되고 남북간의 화해, 교류, 공존이 선

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첫 실마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박대통령의 발언처럼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주민 간에 동질성 회복도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14년 새해를 맞아 그리고 성년의 나이를 맞아 다시금 돌아봅니다,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출발은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 이쁨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성년의 해를 맞아 태어날 당시의 초심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17년의 역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한민족공동체의 꿈은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가는 지속적인 상호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믿음, 즉 지금은 비록 작고 가늘지만 인도적 대북지원은 이러한 과정을 이어가는 큰 길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길이 더욱 크고 넓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써주는 것은 누구에게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변함없이 내보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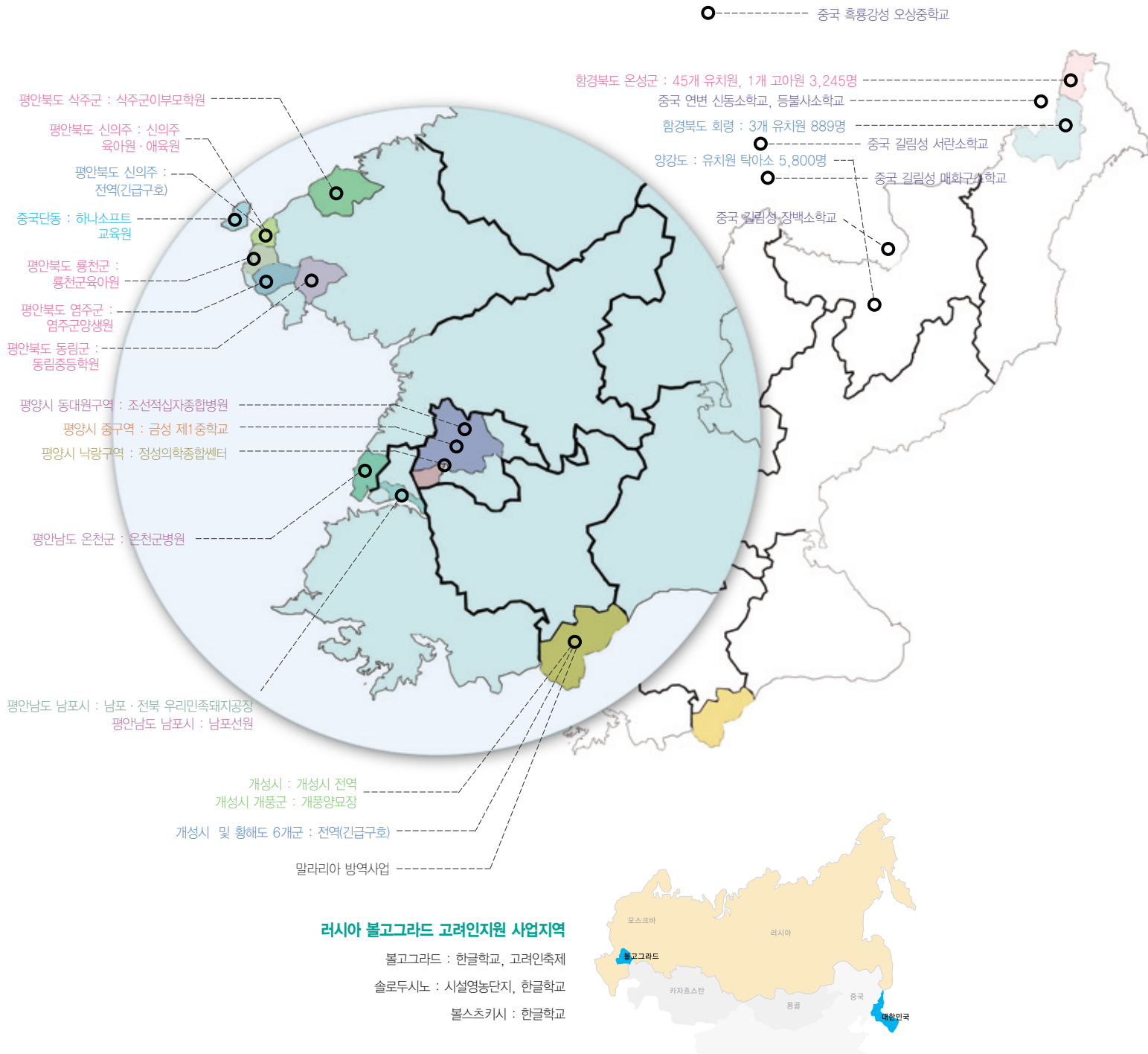
다시 한 번 지난 한해 마음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4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나눔이 가는 곳

- 농촌현대화 사업 ● 축산협력 사업 ● 교육지원 사업 ● 말라리아 방역사업 ● 제약공장 지원사업
- 병원현대화사업 ● 어린이급식사업 ● IT교육사업 ● 긴급구호사업 ● 중국조선족소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방북자 현황

연도	방문횟수(회)	연인원(명)	방문지역별 (횟수/연인원)					
			평양	남포	신의주(룡천)	개성	금강산	기타
1998	2	4	1/2		1/2			
1999	8	29	2/13	4/10	2/6			
2000	19	79	8/48	8/20	3/11			
2001	20	106	14/85	5/17	1/4			
2002	24	212	20/203	3/7				1/2(자강도 만포)
2003	21	363	19/356	2/7				
2004	26	168	18/136	4/15	1/7	1/3	2/7	
2005	62	972	37/811	6/13	2/18	17/130		
2006	72	704	60/647		2/2	8/48	2/7	
2007	65	2,962	38/471		3/3	24/2,488		
2008	49	618	13/217	2/12	4/4	22/377	1/1	7/7(함북 온성군)
2009	25	84	9/59		4/4	2/11		10/10(함북 온성군)
2010	40	83	2/21		1/4	5/26		32/32(온성/회령)
2011	38	65	2/6			8/31		28/28(함북 온성군)
2012	27	30				3/6		24/24(양강도 회성/함북 온성)
2013	12	12						12/12(양강도 회성/함북 온성)
합계	510	6,487	243/3,075	34/101	24/65	90/3,120	5/15	114/115

2007년까지는 한국국적 방문자 집계임.
 2008년부터 북한 어린이 지원 재중동포들의 신의주, 룡천, 함북 온성 등에 방문한 횟수 포함. 양강도 해산과 함북 온성 방문을 제외하면 2013년 순수 한국국적 방북은 전무함.

물자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일반구호	보건의료	농업/축산	급식사업(취약계층)	계
1996	171,500	-	-	-	171,500
1997	4,612,180	-	492,000	-	5,104,180
1998	330,000	-	420,000	-	750,000
1999	2,290,000	376,500	135,000	-	2,801,500
2000	6,382,900	202,190	1,871,270	-	8,456,360
2001	5,344,390	556,000	2,823,230	220,000	8,943,620
2002	2,108,750	1,090,530	3,928,850	165,710	7,293,840
2003	2,891,390	1,952,370	1,209,710	1,302,180	7,355,650
2004	1,007,250	4,726,480	2,074,080	78,125	7,885,935
2005	1,640,380	1,397,730	3,390,790	10,476	6,439,376
2006	828,920	1,499,140	5,264,130	5,180	7,597,370
2007	3,076,948	1,090,922	3,068,778	44,096	7,280,744
2008	4,181,110	3,875,382	2,427,461	67,044	10,550,997
2009	4,163,576	229,980	3,150,606	114,590	7,658,752
2010	666,312	114,917	528,114	212,403	1,521,746
2011	47,000	1,120,368	-	234,491	1,401,859
2012	30,453	-	-	371,177	401,630
2013	11,236	36,872	-	391,916	440,024
합계	39,784,295	18,269,381	30,784,019	3,217,388	92,055,08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3년 활동일지

일년을 돌아보다

0103 평화나눔센터 '2013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약 150명
- 공동주최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사회 : 최완규 상임공동대표
- 인사말 : 최대석 이대 통일학연구원장 (공동대표)
- 발표 1 :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발표 2 : 임수호(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토론 : 조동호 교수(이대), 이정철 교수(숭실대), 이기동 박사

011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116 <북민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정책건의서' 제안

<북민협>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협약' 공식 추진

0118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새길교회 성금 전달식

0121 북한어린이 겨울의류 지원

013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131 <북민협> 정기총회 개최 (서울여성플라자)

회장단제로 유임(회장 인명진 상임공동대표)



- 0207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213~15 '한민족 어린이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교과서 수거' 활동
- 022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227 제71차 공동대표회의 개최 (달개비)

- 0307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314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328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402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411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각계 인사 연석회의 및 기자회견 /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412 <북민협> 통일부장관 면담

0418 경기도교육청 기금 전달식 (의정부 경기북부교육청)

0421~30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 한국 연수 초청

○ 초청인원 : 4명 (룡정시 북안, 화룡시 신동, 연길시 중앙, 훈춘시 훈춘소학교)

○ 연수장소 : 고양시 상탄초등학교 도서관, 용인시 느티나무도서관 등

0423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426 제55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 사회 : 김영수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 주제 : 한반도 위기와 전망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 발표자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051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515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발족식 (서울시청)

0521~24 중국 북안소학교 '네모상자' 도서실 개관식 대표 단 방문 (중국 룡정시)



- 0604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60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613 경기도교육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을 위한 협약식 (경기도교육청)
-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0615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인진각)
- 0619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언 (프레스센터)
- 062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1204~09 중국 조선족학교 사서교사 연수단 중국 방문 (중국 오상시조선족소학교)

121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1213 대구경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준) 정책포럼 (대구 사무실)

1218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1219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의 밤 (CCMM 컨벤션홀)

1223~30 서울시, 경기도 중학교 현 교과서 수거활동

1224 (주)웨스턴테크닉 성금 전달식



1102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수료식 (마포상암풋살장)

1104~08 울산, 경기도 고등학교 1차 교과서 수거작업

1107 2013 대북지원 국제회의 (중국 베이징)

1107~10 중국 오상중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 대표단 중국 방문 (중국 오상시)

1118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대사 면담 (주한 미대사관)

1119~20 서울시, 경기도 고등학교 2차 교과서 수거작업

1120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대회의실)

○ 주제 : 인도적 대북지원과 국제협력

○ 발표 : 크리스토프 폴만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

1121 '통일부 장관의 문책과 민간 자율적 대북지원 활동 정상화를 요구' 하는 <북민협> 성명서 발표

1125 조선족학교 도서실 전달을 위한 한글도서 기증식 (화성시 병점중학교)



- (마포상암풋살장)
- 1014 통일부의 방북 규제조치에 따른 성명서 발표
- 1020 중국 조선족학교에 한글도서 31,500권 지원 (부산항·상해·연길)
- 1029 최완규 상임공동대표 초청 정책간담회 (회의실)
- 1030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 자문관 미팅
-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1010 서울시장, 상임위원 초청 간담회 (서울시청)

1012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 (러시아 볼고그라드)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개강

0903 중국 조선족학교 지원 한글도서 분류작업 (수원 분류센터)

0909 남포산원 지원물자 출항 (인천항·단동·신의주)

0910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 자문관 미팅 (회의실)

0912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924 주한 미대사관 주최 '북한 농업 라운드테이블' (조선호텔)

대북 수해지원 (국수 19톤 / 단동·신의주·평남 안주)

0926~27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경기도 연천군)



0805 평안북도 안주군군민회 수해지원 성금 전달식 (회의실)

0806~09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KYP) 제1기 중국평화투어 (중국 연변 일대)

0814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817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KYP) 제1기 수료식 (환경재단)

0830 <북민협> 대북지원 정상화 촉구 성명서 발표



0701~14 대구대학교 자원봉사단 볼고그라드 한글문화학교 봉사활동

0709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71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716~19 서울시 현 교과서 수거작업

0722 <북민협> 민간단체 대북지원에 관한 성명서 발표

0722~26 경기도 현 교과서 수거작업

0723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대회의실)

○ 주제 : 한반도 평화

○ 발표 : 김동진 평화문화연구원 원장/한신대 외

○ 토론 : 카미 티농 (Camille Tignon) 프랑스 씨앙스포르(릴) 석사과정

072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726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KYP) 개강 (환경재단)

0726 경기도 안산시 한글도서 모으기 행사



대북지원사업

화해와 협력을 위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게 있어서 여러모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1998년 이후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 활동가의 방북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한 유일한 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영유아 지원과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순수 민간차원의 모금을 통한 대북인도지원마저도 매우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규모는 51억 원으로, 이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118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평안남도 안주시 수해지원

2013년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어서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는 큰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 따르면, 평안남도 안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80%가 물에 잠겼고, 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안타까운 수해피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지 며칠이 지난 7월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80대 후반, 90대 초반의 실향민 일곱 분이 방문했습니다. 이분들은 북한 평안남도 안주시(옛 안주군)를 고향으로 둔 이북5도청 산하 평안남도 안주군 군민회(명예군수 최용호) 회원들로 언론을 통해 고향인 안주 지역의 수해피해 소식을 접하고 이를 돕기 위한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기탁된 500만원의 성금과 함께 총 3천만 원 상당의 수해지원용 식량(국수)을 안주시에 전달했습니다.



남포산원 지원 의약품(13.7.22)



북 안주시 수재동포 지원 성금전달식(13.8.5)

남포산원 물자 지원 재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 긴급 수해지원과 함께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된 기존 보건 의료 지원사업의 재추진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우선 남포산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였습

니다. 남포산원은 지난 1998년 남포직할시 중앙 산과병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북한 보건 의료체계상 3차(도병원급)에 해당하며, 남포시와 인근 군지역(대안, 용강, 강서, 온천, 천리마군 등)의 산과(산부인과) 중심병원(도병원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사업 재개를 추진하면서 우선 4천만 원 상당의 분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약 소모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북 지원 규모의 감소는 그동안 남쪽 민간단체들의 지원을 받았던 북한의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 운동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대북지원을 통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긴장 상태의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를 다시 싹트게 하는 일은 한국사회 전반의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입니다.

모쪼록 2014년에는 민간차원의 인도지원이 다시금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북한어린이 지원사업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균형있게 성장하다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어린이 지원사업 “BaBi 희망이다”는 2013년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UNOCHA와 서울대통일의학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함경도와 양강도 자강도 지역 어린이의 영양실조 상태가 30%를 넘습니다. 미약하지만 우리의 힘이 닿는 곳까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물자종류와 대상지역 확대

지원물자에 빵과, 콩우유 가루에서 국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온성군에는 빵과 콩우유 가루를 보내고 양강도 김정숙군과 평안남도 안주시에 국수를 지원합니다.

지난 1월에는 5,000점의 겨울옷을 전달하였습니다. 온성군과 김정숙군에 이어 안주 시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함경북도 온성군의 유치원 어린이 3,600명, 양강도 김정숙군 유치원 어린이 5,800명, 평안남도 안주시의 유치원, 애육원 어린이 2,800명 등 총 12,2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의류와 국수

평화교육사업

청소년과 함께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4년 두 차례의 평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고등학생들이 주축이된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역들과 함께 평화를 배우고, 직접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KYPI)

7월 26일,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 -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The Korean Youth Peace Initiative, 이하, KYPI)가 첫 번째 평화 강좌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KYPI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에 진행한 청소년 평화교육 프로그램으로 6번의 강좌와, 3박 4일의 중국평화투어로 구성되어 8월 중순까지 20여 일간 진행하였습니다.

김동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연구위원이 진행한 평화강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평화’를 우리 주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예시와 설명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조별로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의 강좌를 진행함으로써 일방적인 강의에 익숙했던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갈등지도 그리기와 피스미디어(Peace Media)와 강좌는 우리 주변의 갈등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료식을 겸한 여섯 번째 강좌에서는 박경서 초대 UN인권대사가 ‘인권과 평화-내가 만난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지에서 묵묵히 평화의 길을 걸어온 이들의 삶을 소개하였습니다. 평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중국평화투어’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중국-북한 국경지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평화투어는 두만강 일대



KYPI 조별 토론



KYPI 수료식

북중접경 답사, 우리 단체의 북한/조선족 지원사업 현장 방문, 항일유적지 답사, 백두산 등반 등의 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날부터는 현지 조선족 고등학생 여덟 명이 합류, 이후의 일정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이해하며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땅을 건너다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나 자신’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평화에서 더 나아가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를 함께 고민하고 탐구,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나를 둘러싼 평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10월 12일 토요일,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4주 과정으로 시작한 평화축구교실은 승패와 경쟁을 지양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을 차며 평화의 가치를 몸으로 배우고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로 축구게임 속에 책임, 신뢰, 존중, 평등의 가치를 녹여 아이들로 하여금 이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피부색이 다른 이주민과 혼혈인, 탈북세터민, 조선족과 같은 재외동포들이 한국사회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차별, 반목, 갈등이 심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미래의 평화를 만들어 갈 어린이들이 갈등과 경쟁보다는 협력과 화해를 배울 수 있도록 평화축구교실을 열었습니다. 평화축구교실에 참여한 아이들은 처음에는 평화+축구는 무엇인지도 모르던 아이들이 이내 함께 공을 차며 친구들을 배려하고 신뢰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축구교실에는 댄 거전(Dan Gudgeon,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스포츠매니저) 코치와 김동진 정책연구위원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댄 거전 코치는 영국에서 평화학을 전공하고 인종갈등이 심한 미국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지에서 유소년 축구팀을 지도하면서 축구를 통한 갈등해결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을 통해 갈등해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매년 2차례 진행될 평화축구교실에는 새터민, 조선족 어린이 등 다양한 그룹들이 같은 운동장에서 ‘둥근’ 공을 차며 함께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평화축구교실(위/아래)

헌교과서 수거사업

2013년에도 헌 교과서 날개를 달다

학기말 무심히 버려지는 헌 교과서. 서울과 경기 지역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모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기부합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정성들여 모은 헌 교과서는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실이 되고, 한글학교가 되고, 한 끼 급식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해외 한민족 학생들과 희망을 나눕니다.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희망의 결실

2013년 2월 추운 겨울, 학생들이 고사리 손을 부비며 헌 교과서를 운동장 한 켠에 내 놓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1년 7월, 교육청, 교총과 공동으로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시작된 사업은 2012년 7월에는 경기도로 확대됐습니다. 7월, 2월에는 초등학교, 11월 고등학교, 12월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헌 교과서를 수거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헌 교과서가 총 2,357톤, 참여 학교도 2,200여개(연인원 기준)에 달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 경기 지역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부 캠페인입니다. 자신이 쓰던 헌 교과서, 자습서를 가져와 기부하는 학생들, 학생들에게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학교에서 수거를 조직해 주시는 선생님들, 직접 학교 현장에 나가 수거를 도와주시는 자원활동가들, 교육청과 교총 선생님들은 각급 학교에 사업을 알리고 학교 현장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어 2013년에도 무리 없이 수거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해외 한민족 어린이지원사업

헌 교과서는 해외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에 쓰여졌습니다. 한 학생이 기부한 교과서가 북한 어린이의 한 끼 식사가 되었고, 한 학급의 정성이 러시아 고려인 친구들의 한국어 교재가 됐으며, 한 학교의 참여로 중국 조선족 민족학교 도서실에 튼튼한 책장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다른 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교훈을 2013년 <헌 교과서 날개를 달다> 캠페인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헌교과서 수거사업 기금 전달식



헌 교과서 수거를 돕는 학생들(수원 울현중학교)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네가 꿈꾸는 모든걸 상상해봐 자유롭게! 네모상자도서관

중국에 살고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 학생들이 공부하는 조선족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족학교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조선족 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으며 조선족학생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크게 네가지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첫째는 학생들이 즐거운 새로운 도서관 설치, 둘째는 도서관 운영을 잘하기 위한 도서관 담당 교사 교육, 셋째는 학생들이 읽고 싶어하는 한글도서 지원입니다.

학교 도서관 설치

2013년에 4곳의 조선족학교에 도서관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선정은 중국 교육당국의 민족교육담당 부서 추천과 전문가의 현지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도서관 규모는 130평방미터(약 40평) 정도입니다.

2013년 지원 학교 현황

학교	소재지	학생수	도서관 완공
룡정시 북안소학교	연변자치주 룡정시	640명	2013년 5월
오상시 조선족중학교	흑룡강성 오상시	280명	2013년10월
매하구시 조선족소학교	길림성 매하구시	440명	2013년11월
서란시 조선족소학교	길림성 서란시	200명	2014년1월

도서관 담당 교사 연수

좋은 사서가 있어야 좋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는 한국 초청연수와 중국 현지 방문연수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4월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리순복(룡정시 북안소학교) 신미선(연길시 중앙소학교) 박선자(화룡시 신동소학교) 심철성(훈춘시 제4소학교) 등 4명의 조선족학교 교사를 초청하여 학교도서관 현장체험, 도서관탐방 및 행사참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2013년 12월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동북3성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



① 서란소학교 도서관 내부 ② 매하구소학교 도서관 내부 ③ 오상중학교 도서관 개관식 ④ 북안소학교 도서관 내부전경

운영교육 연수”가 흑룡강성 오상조선족중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학교 도서관의 역할, 학생들의 도서관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독서활동 지도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수에는 요녕성 심양시 화평구서탑조선족수학교, 길림성 장백현조선족실험소학교, 흑룡강성 하얼빈시 동력조선족소학교, 내몽고 우란호트시 조선족소학교 등 12개 조선족학교에서 20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글도서를 보내다

또한 좋은 책이 있어야 좋은 도서관입니다. 조선족학교 도서관에는 한글도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배움이 되는 좋은 한글도서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선족 학생들에게 전달할 한글도서를 모으기 위해 한국의 학생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가정에 있는 깨끗하고 유익한 한글도서 한 두 권씩을 가져와 기꺼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산시 85개 초, 중, 고등학교에서 기부에 동참하였고,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에서도 9개 학교가 참여해 주었습니다. 기부 받은 도서는 먼저 수원에 위치한 분류센터에서 종류별로 선별 및 분류를 거쳐 중국 배분센터로 보내집니다. 이곳에 조선족학교 교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도서관에 비치할 한글도서를 직접 고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별로 500~1,500권씩, 길림성과 흑룡강성에 있는 52개 조선족학교에 31,500권의 한글도서를 지원하였습니다.

한글도서 전달과정



감사의 편지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도서관으로

이강문 오상조선족중학교 교장



우리 학생들이 날마다 책을 읽으며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꾸준한 독서습관으로 저마다의 미래를 발견하고 나아가 행복한 삶의 토대를 쌓아가게 하고자, 그리고 책속이야기의 감동이 있는곳,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도서관이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운영을 잘해나갈 것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진화 오산시 부시장



저는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동무들이 모두 책을 친구로 삼아 도서의 선도적 교육적 역할을 잘 발휘하고 양호한 열독습관을 배양하여 책향기가 넘치는 교정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이 새로 세워진 도서관이 중국과 한국의 연결 고리로 되어 중한 우의의 나무가 한결 더 푸르고 유쾌한 협력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오설란 오상조선족중학교 학생대표



한민족의 뿌리를 타고 이국적인 나라에 서로 갈리어 살지만 마음은 항상 잘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선뜻이 저희들에게도 베풀어주시고 마운 마음과 더불어 나눔의 삶을 영위해 가는 우리민족의 얼은 계절과 관계없이 오늘 우리학교에서 아름다운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부모님들이 한국으로 돈벌이를 떠나자 곤장 굴레를 벗은 망아지 마냥 활개치며 피시방이나 찾아다녔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사랑 갈수기를 맞은 대가로 값비싼 스마트폰을 줄라내선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정신없이 놀았으며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스마트폰에 넋을 빼앗겨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 보냈습니다. 금후 우리는 덧없이 흘러보낸 지난날과 작별하고 기본학습 임무를 충실히 완성하기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좋은 책과 친구가 되기 위해 아담한 네모상자 도서실의 단골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① 오상중학교 도서관 개관식 ② 중국연길 도서배분센터



부안초학교 김현아 학생이 보내온 감사편지

도서관 담당 교사 연수

초롱초롱 30여명 교사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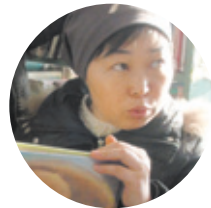
최지혜 바람숲책놀이터 소장

이른 시간부터 늦은 저녁시간까지 초롱초롱한 눈으로 열심히 연수를 받는 30여명의 교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는 더 열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알고자 하는 열망은 중국 동북지역의 무서운 추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김주낭 고양시 상탄초등학교 사서교사

학교 도서관 운영은 겉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 운영하는 사서교사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정순 요령성 무순시 신화조선족소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그림책 읽어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책 읽어주기가 저학년만 아니라 고학년에게도 꼭 필요한 독서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책을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광 오산시 조선족실험소학교 교사

도서관은 책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정리, 대출, 도서관 이용, 교육,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상중학교 독서교육 시범수업

조선족도서관 담당교사 초청연수

정책연구사업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재개와 확대를 모색하다

평화나눔센터는 인도주의와 평화, 남북통합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대북지원 사업의 재개와 확대를 모색하는 다양한 정책 연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포럼 및 토론회

2013년 평화나눔센터는 3차례의 정책포럼과 2차례의 정책토론회, 그리고 2차례의 사무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10년 시작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의 『북한 개발지원 아카데미 전문가 과정』은 2013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평화나눔센터는 이 과정의 기획과 운영에 참가하면서 북한 개발지원에 대한 전문가 양성 교육에도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또 북민협 차원에서 진행된 「대북지원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실무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담당자 등 다양한 대북 인도지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북민협이 처음 주최한 것으로 각계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평화나눔센터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북지원이 가능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정책포럼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연결하는 각종 연구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 정책포럼 및 토론회 추진 현황

항목	일시	주제	비고
제25차 정책토론회	1월 3일	2013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이화여대와 공동주최
제55회 정책포럼	4월 26일	한반도 위기와 전망: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제56회 정책포럼	7월 23일	한반도 평화구축과 인도적 대북지원	
제57회 정책포럼	11월 20일	인도적 대북지원과 국제협력	
사무처 간담회(1)	10월 22일	북한 신경제체계의 내용과 전망	
사무처 간담회(2)	10월 29일	북한의 미래, 남한의 선택	
대구지역 토론회	12월 13일	북한의 최근 경제 변화	



고려인 지원사업

2013 볼고그라드 “YOUTH BOLGO~!”

2000년 볼고그라드 고려인동포 기초생활 긴급지원과 의료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진행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고려인 동포지원 사업은 그 동안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재이주 정착을 위한 시설농업 지원사업, 다민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고려인 축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볼고그라드 고려인들이 스스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수익금 등으로 볼고그라드 한글문화학교의 지원과 한러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볼고그라드 고려인동포의 자립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볼고그라드 한글학교의 고려인 청년 학생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미래내 청년모임과 한국의 대구대학교 학생봉사단의 여름캠프는 ‘한·러 청년들이 함께 준비하고 한·러 청년들이 다함께 어울린 “YOUTH BOLGO”의 한해였습니다.

9년을 맞이하는 볼고그라드 한글문화학교

볼고그라드 한글문화학교 활동은 청년문화모임인 ‘미래내’ 중심으로 사물놀이와 전통무용 모임인 ‘화성’을 통하여 우리의 소리와 춤사위를 각종행사에 참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문화학교 및 볼고그라드 도서관에서 주 3회 이상 우리말과 다양한 우리문화 체험활동 수업을 진행하며 다민족 사회인 볼고그라드의 시민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며 알리는 활동을 합니다.

제 5회 한·러 청년 캠프 ‘대학생 봉사활동’

2013년도에는 대구대학교 학생봉사단이 7월 1일부터 2주간 볼고그라드의 고려인과 여러 민족의 청년 학생들과 캠프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볼가포럼 참가 및 한국어, 태권도, 사물놀이, 전통공예, 벽화그리기, 한글문화학교 수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교류활동을 펼치며 서로를 이해하며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한글문화학교 문화팀 ‘화성’ 고려인과 타민족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한러 청년캠프활동

고려인 청년학생들의 볼고그라드 시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 활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원하는 볼고그라드 한러교류협회 및 한글문화학교 청년학생들은 각종 축제와 행사에 참가하여 틈틈이 익히고 배운 사물놀이, 부채춤 등의 공연을 통하여 우리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문화의 사각지대였던 볼고그라드에서 고려인 동포들은 환갑잔치나 결혼식 등에 한글학교의 문화 공연은 민족정체성과 긍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볼고그라드시 축제에서 방송국 인터뷰하는 동포 청년학생들

볼고그라드시 문화활동 참가하는 청년학생들



축제에 초청되어 펼치는 볼고그라드 청년들의 사물놀이 공연

우리 전통의 부채춤 공연의 모습



전통문화체험(모듬북 등)

태권무, K-pop 배우기

국제협력사업

2013 대북지원 국제회의 국제 연대를 통해 어려운 대북지원 환경의 변화를 모색하다

1995년 북한에 대한 외부의 지원이 시작된 이후 그간 대북지원은 몇 번의 고비를 겪어왔습니다. 아마도 최근 몇 년의 상황도 그 중 한번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조건은 대북지원 기관들을 뭉치게 하는 기회로도 작용합니다. 그 중심에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5회째를 맞는 대북지원 국제회의

2013년 11월 7일, 중국 북경에서 40여명의 대북지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경기도가 2009년부터 매 해 개최하는 본 회의에는 UN 기구, 국내외 NGO, 주요국 대사관 및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명실공히 가장 중요한 대북지원 관련 회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 해 새롭게 회의에 참석한 이들 중에서 퍼시 미시카(Percy Misika) FAO 중국/북한/몽골 대표, 난나 스카우(Nanna Skau) WFP 북한사업지원단장, 니콜 라플레르(Nicolle LaFleur) 국제적십자연맹 프로그램 담당관 등이 눈에 띕니다. 중국 사무소에 주재하면서 대북지원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이들은 기관의 활동과 더불어, 최근 북한의 변화상 및 인도적 상황들을 공유했습니다.

실천적 협력 방안 모색

올 해 회의는 크게 오전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오전에는 대북지원 기관들의 사업 현황과 전망,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으며, 오후에는 농업/식량안보, 보건/취약계층 두 그룹으로 나누어 단체 간 향후 협력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예년 회의가 큰 틀의 공감대 형성과 이슈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올 해는 실제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구체적인 단계를 논의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가운데 단체들은

다양한 온라인 기제들을 이용하여 단체의 활동 경험을 나누는 방안, 국제기구 보고서 발간 시 한국 단체들이 한국어 번역에 참여하는 방안, 소규모 주제별 간담회 개최 등을 논의했습니다.

변화하는 대북지원 환경을 대비하다

대북지원 기구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성격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 간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함께 했을 때 그만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대북지원사업이 다시금 본격화되는 시점의 대북지원 환경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지금의 논의들, 지금의 연대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개별 기관들의 역량이 모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보다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 대북지원 국제회의의 조별토론



“이번 북경 회의와 같은 모임은 한국 NGO, 국제기구, 연구자들이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북지원에 있어 각 기관의 참석자들은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무언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보유한 노하우, 능력, 자원은 북한 지원이라는 큰 퍼즐을 맞추기 위한 작은 조각들이지요. 이 조각들을 잘 조합하면 우리는 북한에서 가장 우리의 도움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난나 스카우 Nanna Skau WFP 북한사업지원단장



대외협력사업

대북인도지원을 위한 협력을 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2과 2013년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회장 단체에 선출되어, 2013년 한 해 동안 대북인도지원에 대한 법제화 추진 등 활발한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대북지원사업이 대부분 중단된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3년 초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단체에 재선되었습니다. 북민협은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로,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초 51개에 그쳤던 북민협 회원 단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활발한 연대활동에 힘입어 2014년 1월에는 59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주창활동 전개

2013년 한해 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북민협은 다양한 주창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하에서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합의 도출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월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44인이 서명한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협약」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9월 발의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안정적인 인도적 대북지원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북민협은 우리 정부의 제한적 대북지원 입장에 대해 ‘북한 어린이 지원 사업 승인 및 대북지원 정상화 촉구’, ‘5개 민간단체 대북지원 승인 관련 통일부 장관 특별성명에

대한 입장’, ‘통일부 장관의 문책과 민간의 자율적 대북지원 활동 정상화 촉구’ 성명서 등을 통해 대북 지원 민간 단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정감사를 위해 민간차원의 대북인도지원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여야 의원실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여야 의원들이 통일부의 반출 및 방북 제한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지원을 정상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북지원 단체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이러한 대외적 활동과 더불어 북민협을 비롯하여 대북지원 단체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사업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 당국간의 회담은 물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되었고, 지난 4년간 소수의 민간단체들만이 인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축적해 온 남북간 협력사업의 업무 처리 know-how와 북측 파트너와의 협상역량의 유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북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억(institutional memory)’ 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금 대북지원이 정상화되었을 때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억’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였습니다. 주1회씩 6주간 진행된 이 교육 프로그램에는 매회 5~6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성과에 있어 다소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그간 중단된 대북 인도지원의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맹아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 발전방안 모색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13. 12. 11)



대북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13. 6. 27)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동안의 사업들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며 지난 1년여를 달려왔습니다. 지역통일인재 양성과 통일사업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한반도를 넘어 한민족의 화합을 향한 힘찬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분단현장에 심은 통일의 묘목, 광주·전남 청소년 DMZ 통일캠프

2010년부터 4년째에 접어든 통일캠프는 지역과 관계기관에 그 가치와 성과를 공고히 인식시킴으로써 청소년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DMZ 통일캠프는 통일관련 체험학습 기회가 거의 없는 광주전남 청소년들이 직접 분단의 현장이자 통일의 시작인 DMZ 지역을 답사하면서, 분단의 아픔과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의 중요성을 느껴보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에는 총 36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2박3일 프로그램으로 5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광주·전남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분단현장 답사, 통일놀이와 수업, 통일뉴스, 통일골든벨 등을 진행하면서, 미래 통일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특히 5회 캠프는 전남 교육청의 사업수행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음에 뜻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조선족 민족학교에 전한 희망의 메시지, 아이들의 꿈이 되고 현실이 되다.

조선족 아이들의 결손을 증대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실행했던, 2011년 연변주 도문시 제2소학교 '방과후교실, 행복의 집' 조성, 2012년 도문 제5중학교 '심리상담실' 조성에 이어, 2013년에는 훈춘시 제4소학교에 '꿈나무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아이들의 꿈은 책을 먹고 자라기에 '꿈나무 도서관'은 아이들이 꿈이 키워갈 좋은 텃밭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조선족 민족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통해 교실연극, 독서활동 등 창의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책장에 잠들어 있는 책을 깨우다. 책 한 권에 꿈 더하기.

한민족어린이 교육지원 기금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헌 교과서 수집운동에 이어, 2013년부터 광주교육청과 함께 한민족책나눔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책 한 권에 꿈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책 나눔 운동은 한민족 아이들의 예쁜 꿈을 키워줄 한글도서 나눔사업입니다. 지역 내 학교와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한글 책과 기금을 모집해, 국내·외에 산재한 동포사회에 기증함으로써 한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故 김영수 목사 추모집 발간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전신인 '작은이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임대표이자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민주인사였던 故김영수 목사 추모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12년 9월~2013년 10월까지, 약 1년 넘게 발간 준비를 하여 11월 8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발간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발간위원장은 리인수 사무총장이 맡았고 부산지역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발간위원회에 결합하였습니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동지부' 개소

2013년 10월 28일, 북한의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 국경도시인 단둥(丹東)에서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동지부'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단동지부는 현지 한인회 전·현직 회장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임원들이 단동지부의 임원으로 동참하였고,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 단동지부와 함께 대북 지원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북녘어린이 겨울 내복 보내기 운동

12월 25일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 동포(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동포애를 전하기 위해 5세~13세용 어린이 겨울 내복 5천벌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개설한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동지부'가 현지에서 실무를 맡았고, '부산어린이어깨동무'도 어린이 내복 지원에 동참하였습니다.



내복을 싣고 들어갈 차량(13. 12. 25)

평양에 도착해 있는 내복(13. 12. 26)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굶주린 동포들을 위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사랑 운동'을 모토로 1997년 11월, 55명의 발기인이 모여 창립되었습니다. 창립초기 이모작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으로 밀가루, 옥수수 등 식량과 아동용 생필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화 55,200불 상당의 옥수수 12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물자는 열차편을 통해 중국 단둥을 거쳐 평양 서포역에 도착하였으며, '모란 강냉이 국수공장'에서 옥수수 국수의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생산된 국수는 북 강원도 중등학교 2곳과 애육원에 매달 1 톤씩 보내지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0일에는 조선교육후원기금 채량일 회장을 만나 북측 아이들을 위해 평화통일 축구공 500개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2,600여개 모든 중등학교에 10개씩의 축구공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지역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축구단을 모집해 강원도 원산을 시작으로 「평화통일 축구 대회」를 개최해나갈 큰 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 뉴욕 주재 북한 유엔 대표부도 환영의 입장을 밝힌 터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아이들을 위한 비누가루 50포와 함께 미국 달라스 베일러 병원 시스템의 후원으로 의료품 및 장비를 강원도 원산 소재 도 인민병원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물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방북시에는 북한 주민들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서 추위를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북측의 한 인사가 웃으면서 "인민들은 겨울을 전투라고 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하루 속히 나아지고, 우리들의 사업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꿈꾸어 봅니다.



강원도 원산시 육아원(13.7)

조선교육후원기금에 축구공 전달(13.12.20)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충고와 나눔을 기다립니다~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파이팅!!♡

이 교 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많은 감
동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의 선
한 영향력이 하나 된 한반도에
넘쳐 흐르길 기대합니다.

임 성 필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지만,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계속해서 전해주세요~!!

양 해 리



통일을 위해 항상 그리고 묵묵히 걸어
온 우리민족의 길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값질 것입니다.
올해에는 남북의 모두가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임 소 라



미소 띠는 자와 일그러진 자의 불균형,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까요?
남북의 균형이 평화롭게
맞춰질 때, 그것이 바로
통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 양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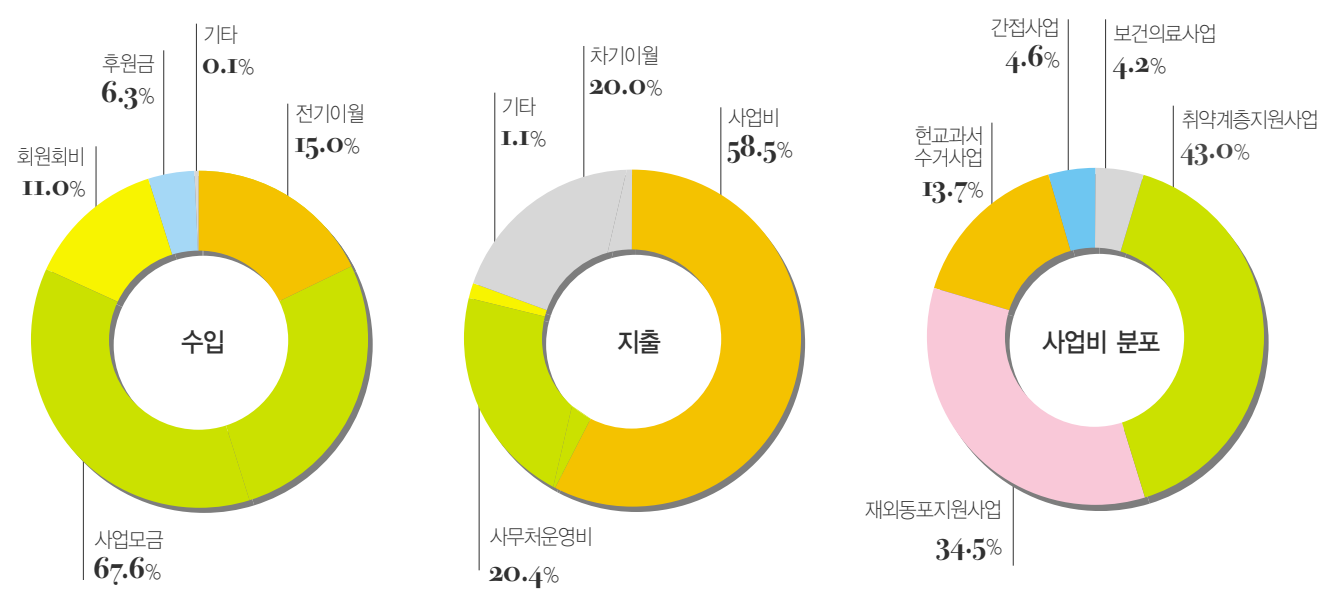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인도주의와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 이 시대
에 정말 귀하고 값지다고 생각
합니다.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그 날을 기대합니다!

한 다 슬

2013 결산보고

수입 (단위 : 원)	
항목	금액
전기이월	247,604,032
모금	1,106,100,951
보건의료협력사업	0
취약계층지원사업	299,785,007
재외동포지원사업	461,557,359
헌교과서수거사업	317,276,931
일반모금	27,481,654
운영비	278,647,065
회원회비	172,490,974
후원금	106,156,091
기타수입	1,542,191
합계	1,633,894,239

지출 (단위 : 원)	
항목	금액
사업비	1,075,822,900
보건의료협력사업비	40,341,796
취약계층지원사업비	411,700,603
재외동포지원사업비	330,098,416
헌교과서수거사업	130,619,286
간접사업비(정책연구사업비 등)	44,101,663
운영비	334,581,942
기타지출	19,594,115
차기이월	322,856,418
합계	1,633,894,239



함께하는 사람들

고문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경조 (대한성공회 대주교)
 서영훈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

상임공동대표
 영 담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 석왕사 주지)
 윤여두 (동양물산기업(주) 부회장)
 이일영 (R.I Korea 상임의장)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공동대표
 김문찬 (법무법인 서정 고문)
 김병준 (양천사회복지법인 대표)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외과 교수)
 김필건 (대한한의학사협회 회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박원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준영 (을지대 총장)
 손진우 (삼용화성 회장)
 원혜영 (국회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이용선 (양천 나눔과 동행 대표)
 이흥우 (한국낙화생조합 이사장)
 전정희 (농수축산신문사 대표)
 정석주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정 여 (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 / 前 범어사 주지)
 정의화 (국회의원 / 새누리당)
 천정배 (동북아전략연구원 이사장)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감사
 김영환 (공인회계사 / 양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전 성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신 대표)

자문위원

김동수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한 (성공회대 외래교수, 법과 인권연구소 소장)
 김윤호 (백두산문화회 회장)
 김종진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교수)
 박남용 (사람인 치료 원장)
 박상옥 (광양 버스터미널 회장, 전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북한법연구회 회장)
 장순천 (포도엔지니어링 대표, 환경기술사)

평화나눔센터
 소 장 이종무
 연구위원 강동완 (동아대 교수)
 김동진 (한국신학연구소 연구원)
 김태균 (서울대 교수)
 문경연 (고려대 연구교수)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
 홍상영 사무국장
 서명희 부장
 이예정 부장
 손종도 부장
 이복철 부장
 황재성 부장
 이영재 간사

광주전남지부
고문
 강신석 (前 조선대학교 이사장)
 안종일 (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윤장현 (광주리더십센터 이사장, 아이안과 원장)
 조비모 (소화자매원 이사장)

이사장
 정석주 (주)광은비즈니스 상무이사)

공동대표
 김광훈 (주산교회 담임목사)
 김영록 (세무사)
 임승진 (임승진치과 원장)

사무처
 이재봉 사무처장
 김필운 팀장
 김석오 간사

부산경남지부
상임대표
 정 여 (前 범어사 주지)

상임공동대표
 이 영 (前 부산시의회 의장, 現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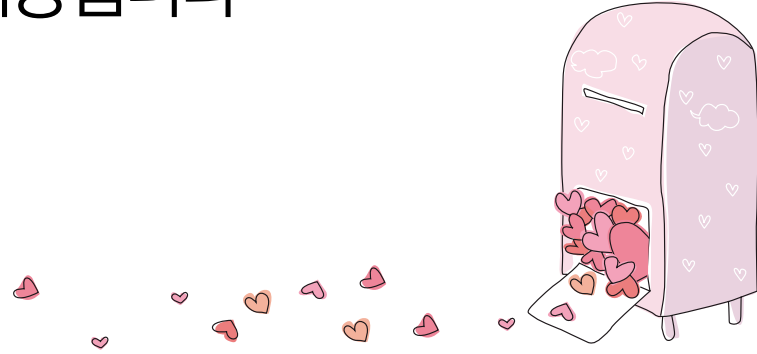
공동대표
 조기종 (조기종 치과의원)
 주병호
 차상조 (로덴 치과의원)

사무처
 리인수 사무총장
 정수진 홍보실장

러시아볼고그라드 사무소
볼고그라드 사무소
 심이리나 회장
 이복철 한글학교 교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유)명건설 (유)세화관광여행사 (유)스마일기획건설 (유)행복한 푸드산업 (재)호루라기 (주)고려정보통신 (주)대용파마텍 (주)리치스톤 (주)삼성파워일렉트릭 (주)세진산업개발 (주)신도데이타통신 (주)여행이야기 (주)중국국민 (주)지담종합건축사 (주)창대산업 (주)창이엔지 (주)클린피에스엠 감복조 강경중 강경태 강경현 강남준 강달호 강대균 강대현 강동완 강동혁 강민수 강병수 강병태 강병희 강삼용 강선미 강섬부 강성구 강승원 강승희 강신 강신우 강원삼 강원호 강은향 강익범 강인철강정미 강정음 강지영 강창구 강채원 강찬일 강철희 강필희 강필희 강혜경 강혜영 강혜영 강희재 강희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진TRM 고광현 고권석 고기은 고기철 고동철 고봉균 고석주 고세량 고승일 고영삼 고유민 고정수 고정한 고진광 고창훈 고희갑 공용택 공은경 공은영 곽동선 곽병권 곽연실 곽영한 곽정란 곽채원 곽철 곽현 구국모 구수영 구영주 구윤경 구은경 구정희 구종모 권두삼 권병오 권보미 권숙희 권승언 권영운 권오근 권오훈 권익산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권현무 권현진 권휘명 금휘식 기나영 길기관 길미성 길창배 김갑수 김갑식 김강민 김강희 김경년 김경돌 김경란 김경란 김경재 김경태 김경표 김경하 김경화 김계순 김공련 김관식 김관호 김광국 김광식 김광아 김광열 김광진 김구 김구철 김구현 김규진 김근섭 김근순 김근우 김금수.이호준 김금평 김기곤 김기동 김기원 김기은 김기정 김기판 김길자 김길철 김나눔 김나홍 김당 김대성 김대영 김대영 김대중 김덕훈 김덕희 김도규 김동규 김동근 김동림 김동분 김동우 김동진 김동천 김동환 김두환 김만진 김만태 김만호 김맹기 김명관 김명숙 김명희 김문혁 김미순 김미홍 김민곤 김민범 김민제 김민제 김민희 김병구 김병국 김병규 김병균 김병수 김병준 김보경 김보연 김부도 김삼수 김삼택 김상근 김상득 김상범 김상수 김상식 김상영 김상운 김상헌 김석진 김석향 김선명 김선미 김선배 김선숙 김선옥 김선창 김선희 김선희 김설자 김성건 김성도 김성렬 김성봉 김성수 김성수 김성숙 김성오 김성우 김성재 김성진 김성철 김성해 김세권 김소영 김수경 김수암 김수현 김순우 김순한 김순진 김신영 김신희 김씨돌 김양규 김양수 김양숙 김연옥 김영규 김영남 김영득 김영모 김영수 김영숙 김영재 김영주 김영호 김옥수 김옥영 김완배 김용관 김용덕 김용민 김용연 김용재 김용현 김용화 김용희 김우영 김우전 김우중 김원곤 김원국 김원섭 김원영 김윤기 김윤미 김윤철 김은경 김은경 김은숙 김은숙 김은혜 김은희 김은곤 김응상 김익곤 김이향 김인선 김일성 김일환 김지람 김장권 김장연 김장훈 김재광 김재기 김재범 김재성 김재옥 김재준 김재홍 김정 김정기 김정미 김정미 김정미 김정수 김정수 김정순 김정원 김정은 김정은 김정민 김정현 김정한 김정희 김제호 김종갑 김종갑 김종관 김종구 김종국 김종비 김종순 김종열 김종칠 김종하 김종헌 김종혁 김주애 김주영 김주완 김주태 김주태 김준석 김준영 김준현 김중수 김중호 김지선 김지숙 김지연 김지우 김진경 김진관 김진문 김진백 김진식 김진영 김진태 김진현 김진현 김진현 김창곤 김창순 김창연 김창영 김태겸 김태균 김태순 김태연 김태평 김태형 김태환 김학경 김학노 김학성 김학신 김학진 김해중 김현 김혁제 김현미 김현삼 김현성 김현우 김현정 김현관 김형순 김형중 김혜경 김혜경 김혜옥 김혜중 김호

일 김홍석 김홍진 김홍희 김화태 신부 김효은 김효정 김희곤 김희년 김희선 김희순 나병만 나선경 나선길 나원연 나은우 나종문 나창미 나창윤 남미림 남상돈 남세현 남영희 남우주 남장현 노관숙 노금호 노순일 노승일 노윤미 노인선 노정환 노제승 노춘봉 노태완 노호균 도재영 라병금 라병화 류덕용 류수빈 류승현 류연석 류영준 류용성 류이근 류재호 류정숙 류주현 류현선 류화자 류희웅 마경화 마명락 마윤중 목주승 문경숙 문경순 문경연 문미영 문상규 문석규 문성권 문성권 문성욱 문수정 문용식 문정숙 문주성 문주연 문진 문태환 민경기 민순옥 민향석 민현주 박강호 박건 박경관 박경국 박경호 박계용 박계운 박공우 박귀순 박귀현 박근희 박기호 박남용 박덕환 박동실 박동우 박동호 박만승 박무영 박문승 박문식 박미경 박미라 박미란 박미숙 박미화 박민욱 박병무 박병섭 박병우 박병진 박복영 박상욱 박상일 박상일 박상희 박석양 박선숙 박선우 박선자 박성기 박성림 박성은 박성찬 박세진 박소희 박순 박순성 박순섭 박애스더 박연규 박영근 박영주 박영철 박요순 박용권 박용수 박용천 박원규 박유중 박윤선 박윤훈 박은영 박은주 박의용 박이현 박인곤 박인숙 박인순 박인준 박재규 박재욱 박재완 박재호 박정근 박정란 박정숙 박정숙 박정식 박정우 박정자 박정화 박종균 박종근 박종록 박종원 박종윤 박종의 박종호 박종호 박종환 박주현 박지연 박지웅 박지호 박진우 박태신 박표균 박현철 박형준 박형중 박혜영 박홍숙 박홍열 박희순 박희운 반치범 방석환 방양수 방재만 방철호 방현섭 배강우 배경이 배덕호 배상수 배소영 배수진 배수현 배정민 배향란 백낙서 백도인 백상헌 백정은 변선에 변은경 변진석 봉미란 사랑의채널(갈릴리교회)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새평무역 서기원 서동화 서명호 서민원 서민희 서순희 서연우 서연우 서옥주 서정숙 서희순 서희정 석상근 석왕사식당 석지홍 석지훈 석찬희 선봉규 선영숙 선정아 설인혜 성낙준 성도경 성열찬 성완호 성현주 손경임 손경환 손광우 손덕현 손삼국 손승호 손영주 손정아 손주현 손진책 손훈 송명민 송두현 송명옥 송민규 송상용 송상윤 송성도 송용석 송운학 송은숙 송은지 송인규 송재영 송재현 송재현 송정배 송정호 송지섭 송춘섭 송태규 송형규 송형욱 수명산교회 수원리교회 신경서 신경은 신규호 신기호 신대현 신동석 신동해 신민수 신범선 신삼복 신신문 신수억 신순남 신용철 신은결 신정식 신종대 신준석 신진현 신희수 심경란 심말선 심승섭 심은실 심재규 심재원 심재정 심정보 심해수 심현용 심현주 심현희 아라온의 아차도교회 안귀녀 안규식 안동희 안명일.임창빈 안명화 안민식 안상화 안석희 안성주 안세봉 안승자 안약천 안영숙 안재형 안정곤 안정덕 안정식 안정훈 안종금 안종출 안준상 안현성 안현숙 안효진 양경진 양관승 양근성 양문수 양미아 양미화 양순환 양어거스틴성 양영아 양우성 양윤정 양이현 양인보 양재복 양재원 양진선 양한식 양해리 양해준 양현석 양혜정 양효정 양희석 어용철 엄기철 엄용수 엄주일 엄규현 엄동현 엄철 영농조합법인부광축산 영의료재단 예희영 오경륜 오계환 오동일 오만순 오명섭 오문택 오민준 오선연 오세호 오소영 오수경 오수형 오승현 오예슬 오용성 오이경 오정진 오준희 오태정 오현광 오형석 오혜근 오혜선 오화선 오훈정 옥용호 온강민 왕정찬 우광택 우성호 우종호 원동오 원종남 원형복 원효진 위대현 위은량 유근춘 유근호 유남길 유명량 유명희 유미경 유방용 유병철 유새벽.유새날 유성식 유승주 유승희 유시민 유연미 유원희 유윤숙 유재욱 유재운(삼연물산) 유재진 유재호 유정석 유지수 유지상 유피에스시스템(주) 유하경 유희권 유희준 육근범 윤광운 윤기홍 윤도희 윤두형 윤미화 윤병현 윤서영 윤석운 윤성진 윤성진 윤승림 윤시원 윤신원 윤엄석 윤여두 윤영복 윤영선 윤용곤 윤인호 윤자영 윤재희 윤정희 윤종식 윤종원 윤주인 윤지열 윤지인 윤지현 윤지현 윤지훈 윤창빈 윤창섭 윤혜정 이강기 이강찬 이강희 이경래 이경미 이경태 이경희 이국림 이규 이규문 이규설 이근덕 이근태 이근행 이기호 이기화 이기훈 이길호 이남재 이남철 이남희 이대호 이동민 이동석 이동섭 이동수 이동영 이동원 이동현 이리나 이명석 이명수 이명천 이명환 이목희 이무철 이미래 이민성 이민영 이병재 이병도 이병동 이병재 이병진 이병준 이상복 이상업 이상업 이상재 이상준 이상춘 이상학 이상호 이상훈 이석용 이선 이선규 이선장 이선호 이선호 이성기 이성민 이성수 이성주 이성철 이성호 이세준 이수구 이수구회장 이수명 이수연 이수정 이숙영 이숙자 이숙희 이송곤 이송영 이송우 이송한 이송환 이양재 이연하 이연주 이엽 이영내 이영동 이영숙 이영주 이영철 이영호 이영환 이영훈 이영휘 이옥순

이완수 이용균 이용범 이용선 이용선 이용선 이용성 이용암 이용연 이용찬 이우영 이운식 이운학 이원민 이원욱 이유열 이윤관 이윤
상 이은경 이은혜 이응세 이인덕 이인수 이일선 이일양 이일영 이일영 이장원 이재명 이재원 이재하 이재학 이재현(밝은세상) 이재희
이정미 이정민 이정세 이정수 이정숙 이정식 이정엽 이정주 이정철 이정훈 이정희 이재현 이종명 이종문 이종민 이종민 이종석 이종
섭 이종성 이종안 이종주 이종학 이종호 이주철 이주형 이준동 이지나 이지영 이지영 이지용 이지운 이지원 이지은 이지하 이진권 이
진택 이찬우 이찬웅 이창용 이창재 이재경 이재린 이천권 이천환 이청희 이춘삼 이춘목 이치수 이태주 이필원 이학수 이한걸 이한솔
이한택 이항 이항미 이현경 이현석 이현숙 이현숙 이현우 이현재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현진 이혜경 이혜란 이혜옥 이혜옥
이혜원 이혜정 이홍우 이홍준 이황복 이효식 이희원 이희종 이희택 임강택 임건재 임광호 임금숙 임김실 임동권 임동선 임문희 임미
자 임병수 임병철 임세진 임소라 임옥현 임완민 임원빈 임인기 임장원 임재민 임재일 임정에 임지훈 임창영 임춘수 임학규 임현직 임
형주 장길수 장민환 장범식 장보형 장사익 장선영 장수필 장순천 장영준 장용성 장용훈 장원석 장유경 장윤진 장은하 장재영 장주혜
장준호 장춘용 장형수 장환빈 전극재 전미란 전범권 전병은 전병태 전병희 전성관 전영일 전영일 전용운 전일순 전정수 전정희 전중
수 전체남 전충수 전향미 전혜린 전훈 정경순 정경옥 정경훈 정계현 정광수 정극철 정근 정근영 정금나 정기석 정기운 정동혁 정두음
정란아 정명준 정미선 정미혜 정민 정범진 정병헌 정상모 정상원 정성만 정성경 정성호 정성희 정수근 정수준 정수진 정수현 정수희
정순지 정승혜 정연실(송경평) 정연용 정연정 정연준 정영철 정영희 정욱식 정은림 정은미 정인성 정인준 정재민 정재욱 정재환 정정
옥 정정태 정중원 정중렬 정지영 정지원 정지원 정지은 정지현 정지혜 정진영 정찬광 정창수 정태규 정태은 정한성 정해문 정해열 정
현근 정현철 정혜숙 정혜인 정홍상 정회범 정회인 정후진 정후귀 제해성 제해준 조갑식 조기봉.세운 조길영 조남숙 조대엽 조두연 조
두형 조만용 조매경 조민지 조봉현 조석희 조선아 조선영 조성숙 조성탁 조성호 조성희 조승훈 조승희 조영상 조영석 조영식 조용원
조용진 조우영 조윤 조윤곤 조은미 조은희 조응원 조재호 조정순 조정아 조주원 조준혁 조지현 조진영 조창식 조태현 조한민 조해기
조현 조현영 조현호 조형준 조형준 조홍열 주관수 주로미 주송순 주우현 주원섭 주재열 주현기 주혜영 주희옥 지선경 지준호 지태석
진관스님 진상호 진성두 진양숙 차규화 차현애 차형철 채병철 채보미 채송화 채우혁 천경배 천봉실 천정배 최경미 최경인 최규원 최
근혁 최기수 최기찬 최문석 최병희 최사라 최성범 최성수 최세문 최수진 최숙희 최순옥 최승호 최승호 최식덕 최양옥 최영림 최영신
최영희 최우정 최유복 최윤식 최윤실 최윤표 최의찬 최인엽 최재근 최재문 최재원 최재천 최정수 최정에 최정환 최종철 최준수 최준
혁 최진욱 최진원 최창윤 최철영 최태자 최태희 최필선 최현주 최희송 최희은 추진해 탁병섭 탁종녀 포항바다교회 푸른초장교회 풀무
학교 하성환 하승창 한강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화학연구원 한기백 한길식 한나영 한복희 한다솔 한다현 한덕섭 한덕섭 한덕희
한동학 한동휘 한동희 한두희 한만길 한상균 한상만 한상철 한서정 한성희 한승엽 한영숙 한예린 한원택 한윤구 한은혜 한인숙 한인
숙 한정화 한지섭 한진욱 한창균 한창수 한창연 한창현 한하니 함기문 함영준 함용운 허경기 허귀석 허민석 허설 허원종 허인웅 허정
허정윤 허준웅 현관송 현대명덕판매대리점 현윤식 현윤실 현윤애 현종스님 현종윤 현지연 호영진 홍광표 홍구표 홍기호 홍란희 홍란
희.최은서 홍면기 홍명석 홍미옥 홍상운 홍석 홍석조 홍성각 홍성건 홍성근 홍성복 홍숙희 홍윤정 홍제표 홍준석 홍진표 홍창영 홍현
선 화신농건 환성스님 환승스님 황계연 황금철 황대철 황명필 황병규 황성주 황의중 황인선 황장권 황재성 황재용 황재택 황중철 황
지중 황창규 황현택